

동성애 혐오,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일까요?

혐오는 폭력이며 차별입니다!



동성애 혐오에 맞선 기자회견 2010년 10월 6일

동성애자에게는 요즘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분위기가 섬뜩할 정도입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은 일간지(조선, 중앙, 국민일보)에 동성애에 전염된다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전파의 주범이라는 허위 주장을 실은 하단 광고를 몇 번에 걸쳐 실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 걸러 죽으면 SBS 책임져라!”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하용법안으로 둔갑시켜 진보 정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느라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형법 92조(기간_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닭으로 비유하며 비하하는 용어_기타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접거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없다며 동성애자를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군대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이성, 동성 간의 성희롱, 성추행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급기야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이들이 직접 찾아와 이유를 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동성애자들에게 “회개하라, 불지옥에 떨어질 것”

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비호 아래 동성애반대포럼을 열었습니다.

**동성애자 때문에 가족과 사회가 무너진다고요?
‘혐오’는 우리를 갈라 놓습니다.**

끔찍한 혐오가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고, 이주자들 때문에 사회가 망한다며 떠드는 동안 단속에 내몰린 한 이주노동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는 커녕 에이즈 감염 공포를 조장하며 다시 한번 낙인의 칼을 들이댑니다. 동성애자 마녀사냥이 시작되려는 듯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교계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한국사회를 보수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자들입니다. 교회권력과 우익정치인들, 보수언론, 그리고 사장들까지 뒤엉켜 소수자를 희생양삼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출산이 낙태한 여성 때문이며, 이주노동자 때문에 한국인의 일자리가 빼앗긴단 말인가요? 어째서 에이즈 환자는 적절하게 치료받을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병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들은 동성애가 가족을 붕괴시키고 군대를 무너뜨리며 청소년을 비행으로 이끈다는 거짓을 유포할까요?

이들은 검증되지도 않는 피해 운운하며 다수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약자들에**

게 돌리고 결국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을 것을 강요합니다.

**동성애 혐오는 폭력이며
차별입니다.**

‘혐오’는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을 갈라놓고 적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성애 혐오에 함께 맞서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단호히 반대하십시오.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광기어린 혐오조장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소수자들의 삶을 짓밟는 모든 행위를 멈추라고 외쳐주십시오.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혐오를 거두는 것,
그 자리에 평등한 사랑과
권리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싸울 때만이 가능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

lgbtpride@empal.com

070_7592_9984

동성애자인권연대는 1997년부터

성소수자 (여성,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등) 인권 증진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동성애 혐오에 맞선
성소수자들의 거리 문화제**
2010년 11월20일(토) 오후3시 서울 도심

우리 성(性)소수자*들도 함께 외치러 나왔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생존권/민주주의/인권 탄압하는 G20을 반대한다!

*성(性)소수자는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 남성 동성애자(게이), 양성애자(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트랜스섹슈얼, 간성(인터섹슈얼)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G20은 우리에게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고 각종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결정판입니다. IMF를 강화시켜 우리 피고름을 빼먹고, 허울 뿐인 개발과 지원에 대해 거짓 약속을 남발할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논의할 것이란 공공성과 복지를 무너뜨리고 투기자본의 살구멍을 마련해주기 위한 방책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자를 내쫓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운동을 탄압하는 등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조차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성소수자 또한 물론 그 중의 일부입니다.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모두가 4대강 삽질의 피해를 짊어지게 될 것이며, 복지 축소로 삶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2005년 대선 후보 당시 “나는 기본적으로 반대죠. 내가 기독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동성

애는 반대입장이지요.” 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표명한 호모포비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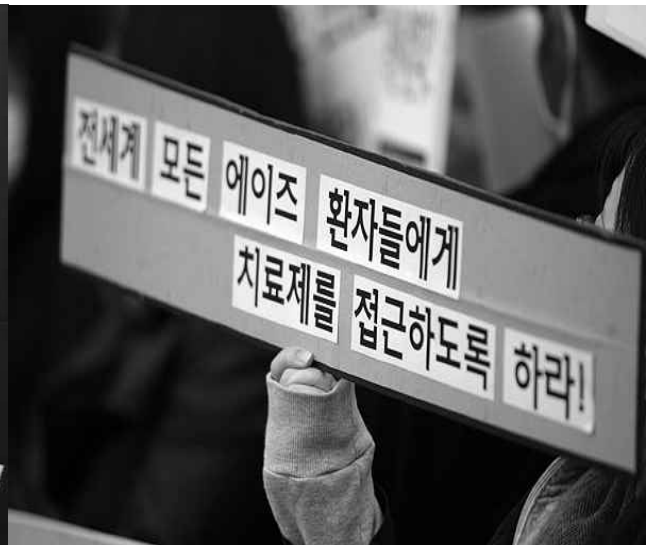
최근 우익들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여성, 장애인, 이주민, 동성애자, 한부모 가정,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우리가 차별조장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G20 항의행동에 함께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2009년 G20 항의 대열)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항의 행동



G20은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할 권리, 보편적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G20 국가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 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핑계로 자신들의 책임마저 회피하며 오히려 빈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IV/AIDS는 건강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HIV/AIDS는 ‘걸리면 죽는 병’이 아니라 치료제를 복용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일 뿐입니다.

2002년 G8 국가들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펀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펀드에 낸 기여금을 종합해보면 전체 기금의 0.07% 정도이고 G20 중 글로벌 펀드 기여금을 납부하는 16개국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중

국에 이어 13위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 중 글로벌펀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25개국 중에서는 20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색내기용 기여금을 내면서 G20 정상회담 개최국으로서 원조에 많은 신경을 쓰는 척 하는 것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세계 각국이 약속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8가지 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는 HIV/AIDS 퇴치 의제가 담겨있고 하위 목표중 하나가 2010년까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HIV/AIDS 감염인들에게 보편적 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감염인의 60%가 치료받고 있지 못하고, 2·3차 치료제에 대한 접근은 더욱 제한적이며, 매일 6000명이 넘는 에이즈환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 다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G20 정상 국가들이 빈곤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HIV/AIDS 예방과 감염인 치료를 위한 기금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HIV/AIDS 감염인들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을 넘어 약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익들은 HIV/AIDS 감염인의 인권과 치료접근권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에이즈 공포를 조장하여 HIV/AIDS 감염인들을 공격하고 한 편으로는 동성애자를 에이즈 전파의 주원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 빈곤, 특허권이 에이즈를 확산시킵니다. 에이즈 치료제를 파는 제약회사들의 특허권 대신,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약을 공급하라고 요구합니다!